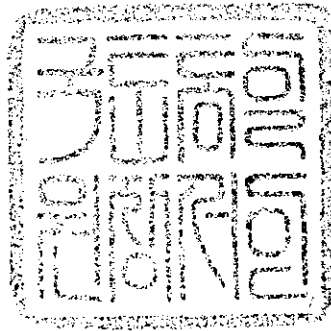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年 12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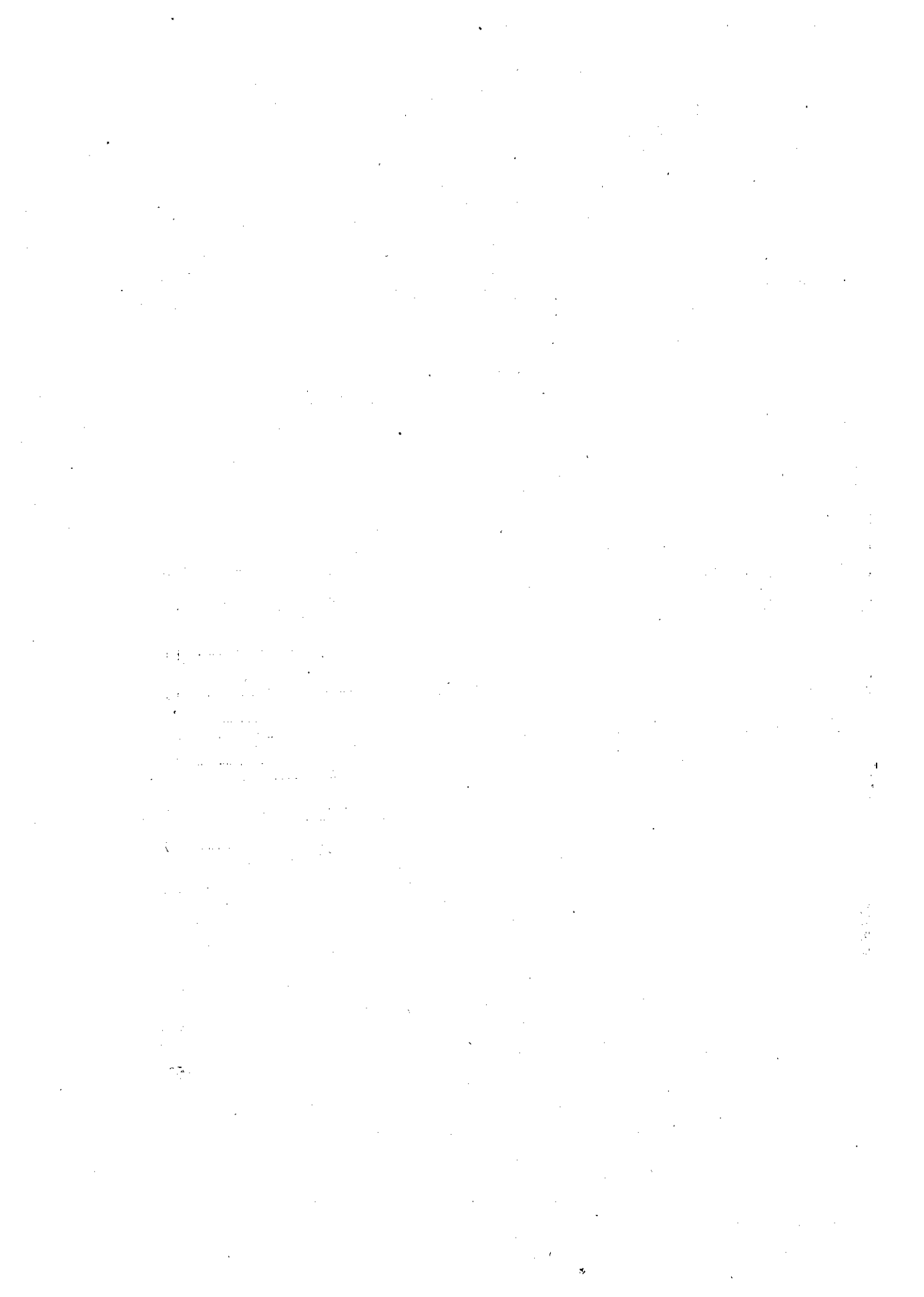
전산필



姜 永 善

목 차

| | |
|---------------------|----|
| 1. 서론 | 3 |
| 2. 国立公園化를 위한 종합학술조사 | 5 |
| 1) 조사의 필요성 | 5 |
| 2) 조사목적 | 6 |
| 3) 조사내용 | 6 |
| 4) 조사기간 | 8 |
| 5) 조사단구성 | 8 |
| 6) 조사방법 | 10 |
| 7) 운영 | 10 |
| 8) 기대되는 성과 | 11 |
| 9) 예산 | 12 |
| 10) 공과료 | 14 |
| 11) 문제점 및 대책 | 15 |
| 3. 기왕에 연구조사된 동식물상 | 17 |
| 1) 雪岳山의 동물 | 17 |
| 2) 雪岳山의 식물 | 31 |
| 3) 金剛山의 동물 | 37 |
| 4) 金剛山의 식물 | 48 |
| 5) 香炉峰의 동식물 | 51 |
| 4. 결론 | 52 |
| 5. 참고문헌 | 53 |



1 . 서 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불려 산천이 수려함을 세계 만방에 자랑해 왔으며, 또 우리나라를 구경한 외국인들도 「고요한 새아침의 나라」라고 표현하여 희망과 생기에 충만되어 있는 우리의 江山, 環境을 극구 찬양할 정도로 우리는 아름다운 강산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40년에 가까운 일본의 침략, 착취와 8.15해방 및 6.25사변을 통한 계속된 혼란 속에서 그 아름답던 우리 江山은 여지없이 헐벗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고, 더구나 人口의 격증, 都市의 팽창, 工業의 발달등은 필연적으로 自然을 파괴 내지는 변형시키고 말았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어 自然의 파괴가 직접, 간접으로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여러가지 각도로 조사 검토할뿐 아니라 무조건 自然의 파괴를 막고, 영원히 自然을 保護, 保存하기 위하여 天然保護地域 내지 國立公園의 설정을 서둘러 오고 있으며 그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조사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國際自然保存聯盟 (IUCN)의 활동, 國際生物科學의 研究計劃事業 (IBP), 人間環境에 관한 UN特別委員會의 활동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國土가 양단되어 있는데다가 워낙 좁고, 自然資源이 거의 없는 형편이지만, 다행하게도 江原道에 자리

잡고 있는 雪岳山은 일찌기 天然保護區域 및 國立公園으로 지정되어, 그 自然이 비교적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바로 북쪽에 위치하는 香炉峰과 金剛山은 옛날부터 絶景인 名山으로 유명했으며, 해방이후 특히 6.25 동란 이래 남북한의 군사요충지로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어 왔기때문에 역시 옛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들 雪岳山-香炉峰-金剛山을 잇는 太白山脈의 중심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國立公園으로 개발하게 되면, 세계적인 自然公園이 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의 일부이나마 保存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대휴식처가 됨은 물론, 수 많은 외국 觀光客을 유치하여 외화획득에도 크게 공헌할 것이 예상된다.

만일 이들 지역을 앞으로 國立公園으로 설정하려면 그 기초작업으로 自然資源에 대한 철저한 연구조사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남북의 대화가 진척되어 남북한 공동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경우, 실제로 어떠한 계획이 필요하며, 또 이제까지 산발적이거나 이들 지역을 조사 연구한 결과는 어떠했던가를 여기 소개해 볼까한다.

2. 国立公園化를 위한 종합학술조사

1) 조사의 필요성

우리나라 非武装地帶 및 그의 인접지역의 남북한 공동개발을 위한 종합학술조사는 남북한의 관계학자들이 政治나 思想을 떠나 순수한 學問的인 면에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우선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自然科學 분야 중에서는 어느 과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다음에는 황폐 일로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의 自然을 保護 내지 保存하는데 시급성이 될 것이 확실하다. 선진국의 예에 따르면 国立公園의 설정은 개발이 위주가 아니고 최소한의 개발에 최대한의 自然保存이 그 목적이 되고 있다. 金剛山 및 그 인접지역은 일찌기 1930년대에 벌써 日本政府에서 国立公園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종합적인 학술조사에 착수했다가 中國과의 전쟁이 터지자 중단되고만 일도 있거니와 이와같은 일은 현재로서 만시지탄이 있는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또 이 지역을 종합 개발하게 되면 그 범위로 보나 景觀으로나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自然公園이 될뿐 아니라 東洋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自然公園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 외국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찾게 될 것이요, 그 결과로 많은 의화가 우리나라에 떨어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다른 나라의 예로 미루어 본다면 연간 5억 내지 10억달러의 수입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2) 조사의 목적

우리나라의 脊梁山脈이라고 할 수 있는 太白山脈의 嶺峰인 雪岳山, 香炉峰 그리고 金剛山을 연결하는 일원에 대하여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게 하고 이를 앞으로 영원히 保存하기 위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自然公園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종합학술 조사를 약 3년간에 걸쳐 실시코져 한다.

3) 조사내용

(1) 조사지역

남한의 江原道 북동부에 위치하는 雪岳山과 香炉峰, 그리고 북한에 위치하는 金剛山을 연결하는 광범한 지역이 된다. 현재 香炉峰과 金剛山 사이에 非武装地帶가 놓여 있다.

(2) 조사분야

조사지역내에 존재하는 自然資源과 그들의 구조를 파악하며, 앞으로 保護管理를 해나가는데 기초가 되는 다음의 학술분야를 조사범위로 삼는다.

동물학분야

포유동물

조 류

기타 척추동물 (파충류, 양서류)

수서동물 (담수어류 및 곤충류)

곤충류

토양생물

식물학분야

목본식물

초본식물

하등식물 (선태류, 지의류)

수생식물

생태학분야

동물의 分布 (수평, 수직分布)

동물의 集團

식물의 分布

식물의 遷移

토양성분

지질학분야

지질개황

암석 및 광물

지질구조

지사

조경 및 토목분야

측량조사

시설물 및 토목공사

4) 조사기간

조사 개시일 부터 3년간 (36개월)으로 한다.

5) 조사단 구성

조사단구성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나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연구조사단을 조직하고, 이들 양 조사단을 통괄하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조사단의 운영, 결과분석 및 보고서작성, 간행등의 일을 협의 실시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본다.

합 동 협 의 회

| 사 무 관 리 부 | 단 장 (남 한) | | | 단 장 (북 한) | |
|--------------|-------------|-------|-------|-------------|-------|
| | 동 물 부 | 식 물 부 | 생 태 부 | 지 질 부 | 조 경 부 |
| | 포유동물반 | 목본식물반 | 동물분포반 | 1 반 | 1 반 |
| | 조 류 반 | 초본식물반 | 동물집단반 | 2 반 | 2 반 |
| | 척추동물반 | 하등식물반 | 식물분포반 | 3 반 | 3 반 |
| | 수서동물반 | 수생식물반 | 식물운집반 | 4 반 | 4 반 |
| | 곤 충 반 | | 토양성분반 | | |
| | 토양생물반 | | | | |

조사단의 인원은 다음과 같이 각각 84 명으로 한다.

합동협의회 : 양측의 단장과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14명)

단장 : 학술조사단을 통괄하고, 그 대표가 된다. 단장이 유고시에는 그가 지명하는 부장이 그 일을 대행한다 (1명).

부장 : 각 부의 대표로서 연구 조사에 있어 그 반원을 지휘 감독하며 협의회 참석자격을 갖는다. 유고시에는 그 부내에서 최고령자가 대행한다 (6명).

반장 : 조사반별 책임자로서 연구조의 계획, 운영, 결과보고, 보고서 작성등의 책임을 맡는다 (24명).

반원 : 반장의 지시에 따라 조사 현구를 실시한다 (48명).

상기 부서중 단장, 부장, 반장은 각각 1명씩으로 하고, 반원은 각각 1명씩으로 하고, 반원은 각각 2명씩으로 한다. 사무관리부는 부장 1명, 사무원 2명, 운전사 3명으로 구성한다. 원칙적으로 반장이상은 대학교수로 위촉한다.

조사단구성에 있어 상기한 공동조사방법 (제1안) 이외에 남북한의 학자가 한팀을 구성하는 합동조사방법 (제2안), 그리고 제3국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최고책임자 (조사단장)로 하는 공동조사방법 (제3안)과 합동조사방법 (제4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제1안이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서 가장 무난한 방법이기에 여기 추천하는 바이다.

6) 조사방법

남북한 양 조사단은 각각 전조사지역을 상대방 조사단의 안내로 예비 답사를 실시한 다음 수시로 양측은 서로 학술자료를 제공한다. 본조사는 원칙적으로 반별로 실시하게 되는데, 반드시 상대방의 안내를 받으며, 조사된 자료는 각반에서 정리,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에서 얻은 標本은 각반에서 보관한다.

조사결과는 협의회에서 수시로 검토하여 연구조사 방향을 바로 잡게 하며, 정리된 결과보고를 인쇄하여 공동으로 출판한 다음 양측 정부에 제출한다. 실제로 1년마다 중간보고를 인쇄하여 공동으로 출판한 다음 양측 정부에 제출한다. 실제로 1년마다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3년이 경과된 다음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한다.

7) 운영

(1) 협의회

남북한 양측의 단장 및 각부의 부장으로 구성하되, 단장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협의회는 연구 조사의 계획, 조사단의 구성 및 활동, 조사결과의 분석, 보고서작성등 조사사업 전반에 걸친 협의를 한다.

(2) 조사활동

남북 양 조사단은 서로 전 조사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3년간 계속해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조사팀은 원칙으

로 각반을 단위로 하여 활동하며 반장이 이를 인솔키로 한다. 조사기간중 상대방 지역에서의 숙박, 식사의 편의를 주선하며, 조사지의 안내, 신변의 보호를 한다. 단 조사에 필요한 기구 일체와 교통편을 위한 전용차량은 양 조사단에서 각각 준비한다. 조사반 구성에 있어 반장은 그 분야의 권위자로 하고 반원은 조교 및 대학원생으로 충원한다.

(3) 사무관리부

단장에 지시에 따라 정부관계부처, 남북조절위원회, 군부등과의 교섭을 비롯하여 조사사업 전반에 걸친 사무를 담당한다. 조사단의 파견운영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실시한다. 현지 조사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측 조사단에 각각 차량 3대씩을 비치한다. 조사는 이미 세워논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각반의 요구를 참작해서 운영한다. 조사대상지의 대부분이 양측 군사상요새이기에 조사자는 일정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거기에 명찰, 사진등을 달아 조사자임을 명백히 표시한다. 또 양측 조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단장을 통해 수시로 연락한다.

8) 기대되는 성과

(1) 國立公園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우리의 고유한 自然資源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國立公園 내지 自然公園으로 지정 개발한다. 소멸되어 가는 自然資源을 保存함으로써 우리 후손에게 이를 전해

를 수 있다.

(2) 점차로 잃어가는 정신적인 휴식처를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고유의 自然資源을 외국인에게 소개함으로써 國威를 선양하고 觀光客 유치에 의한 막대한 외화획득이 또한 가능하다.

(3) 남북한 학자의 공동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그 성과는 바로 남북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9) 소요예산

(1) 인건비 (주로수당)

| | |
|------|--|
| 조사단장 | $100,000 \text{ 원} \times 36 \text{ 월} \times 1 \text{ 인} = 3,600,000 \text{ 원}$ |
| 사무부장 | $80,000 \text{ 원} \times 36 \text{ 월} \times 1 \text{ 인} = 2,880,000 \text{ 원}$ |
| 사무원 | $30,000 \text{ 원} \times 36 \text{ 월} \times 2 \text{ 인} = 2,160,000 \text{ 원}$ |
| 운전사 | $50,000 \text{ 원} \times 36 \text{ 월} \times 3 \text{ 인} = 5,400,000 \text{ 원}$ |
| 잡부 | $1,000 \text{ 원} \times 36 \text{ 월} \times 20 \text{ 인} = 720,000 \text{ 원}$ |

(2) 여비

숙박비 $2,500 \text{ 원} \times 36 \text{ 월} \times 20 \text{ 일} \times 12 \text{ 인} = 21,600,000 \text{ 원}$

주수당 (일당)

사무부장이상 $3,000 \text{ 원} \times 36 \text{ 월} \times 20 \text{ 일} \times 3 \text{ 인} = 6,480,000 \text{ 원}$

반 원 2,000 원 × 36 월 × 20 일 × 6 인 = 8,640,000 원

(3) 실험기구, 시약

기 구 100,000 원 × 3 년 × 74 반 = 7,200,000

시 약 50,000 원 × 3 년 × 24 반 = 3,600,000

(4) 사진자료

필림 (원색) 800 원 × 100 통 = 80,000 원

필림 (흑색) 400 원 × 100 통 = 40,000 원

제 작 비 200,000 원

(5) 인쇄비 (4 × 6 배판, 아트지, 양장)

편집비 300,000 원

인쇄비 3,000 원 × 500 면 = 1,000,000 원

동판비 (원색) 20,000 원 × 100 매 = 2,000,000 원

원고료 300 원 × 500 면 × 7 매 = 1,050,000 원

(6) 車輛운행비

연료대 70 원 × 40 l × 36 월 × 20 일 × 3 매 = 6,048,000 원

관리비 (수리기타) 100,000 원

(7) 車輛구입비

랜드. 크루자 1,200,000 원 × 2 대 = 2,400,000 원 (\$ 3,000)

지 프 800,000 원 × 1대 = 800,000 원

(단 무세로 계산한 것임)

(8) 회의비 3,000 원 × 14 인 × 30 회 = 1,260,000 원

(9) 기타 공과잡비 (5%) 4,213,900 원

총 계 84,171,900 원

10) 공 과 표

| 내 용 | 연도 1월 | 1 차 년 | | | | 2 차 년 | | | | 3 차 년 | | | |
|-----------|-------|--------------|----|---|----|-------|----|---|----|-------|----|----|----|
| | | 2 | 4 | 6 | 8 | 10 | 12 | 2 | 4 | 6 | 8 | 10 | 12 |
| 조 사 계 획 | | ←→ | | | | | | | | | | | |
| 예 비 조 사 | | ←→ | | | | | | | | | | | |
| 현 지 조 사 | | ←→ 2 개 년 간 → | | | | | | | | | | | |
| 결 과 분 석 | | | | | ←→ | | | | ←→ | | | ←→ | |
| 결 과 검 토 | | | ←→ | | | ←→ | | | ←→ | | | ←→ | |
| 보 고 서 작 성 | | | | | | | | | | | ←→ | | |
| 보 고 서 인 쇄 | | | | | | | | | | | | ←→ | |

11) 문제점 및 대책

非武裝地帶의 일부를 남북한 공동연구조사 내지 공동개발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조사대상지역의 대부분을 양측 군대가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사와 개발을 시도하려면 그 지역에서는 非武裝地帶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며, 조사단원이 현지에서 작업하는 동안에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 점은 우선 정치적 및 군사적인 면에서 완전히 합의가 된 뒤 조사단의 활동이 가능하다.

다음에는 예산면이 문제가 된다. 본 조사단 구성은 어떤 개인의 연구와는 비교가 안되며 한쪽편 조사단 구성에 약 80명 이상의 인원이 동원이 되고 3년간의 계속 연구이기에 총액 84,171,900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동양에서 제일가는 自然公園을 만든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소비된 예산의 몇 10배 내지 몇 100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또 한가지는 조사단 구성과 운영에 있어 남북의 학자들이 어떻게 협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思想이 다르고 體制가 다른 세상에서 각각 30년이나 살아온 두그룹의 학자들이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협조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또한 큰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로지 政治나 思想을 떠나 순수한 학문적인 면에서 양측이 협조해야 된다고 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赤十字會談에서와 같이 공연히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등의 일이 빚어진다면 이 사업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중요한 몇가지 일이 해결될 때 국가적으로도 거창한 이 사업은 잘 진척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3. 기왕에 연구조사된 동식물상

1) 雪岳山의 동물

이 지역은 地理상으로 시베리아坳區의 바로 남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地形상으로는 북한외 고지대와 연결하는 太白山脈 중앙에 위치하는 비교적 높은 지대이므로 시베리아坳區의인 동물요소도 존재한다. 실제로 雪岳山에는 표범, 산양등 시베리아坳區의 특정한 포유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白頭山을 비롯한 한국 북부에 주로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이 雪岳山에도 있다. 조류중에도 한국 북부에 사는 가막딱다구리, 잣가마귀, 솔새, 흰배멧새등 한지성 조류를 雪岳山의 표고 1,200 m 부근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포유동물

外雪岳 및 內雪岳의 비교적 저지대에서 대륙밭쥐, 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를 수 많이 찾아볼 수 있어 서식밀도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집쥐와 곰쥐는 사찰이나 인가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또 오수리, 노란목도리담비, 족제비, 멧토끼, 다람쥐등도 흔한 편이다. 오수리, 너구리, 곰, 산양등 대형인 포유동물도 비교적 많으며, 특히 그 중에도 산양은 수년전만해도 겨울철에 수백마리, 곰은 수십마리씩이나 포획되었다하니, 이들 종류가 雪岳山에 적이나 많이 서식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雪岳山에서 이제까지 알려진 포유동물은 다음과 같이 25 종이다.

| | |
|----------|---|
| 멧돼지 | <i>Sus scrofa coreanus</i> |
| 사향노루 | <i>Moschus moschiferus parvipes</i> |
| 노루 | <i>Capreolus capreolus bedfordi</i> |
| 고라니 | <i>Hydropotes inermis argyropus</i> |
| 산양 | <i>Naemorheudus goral raddeanus</i> |
| 오수리 | <i>Meles melanogenys</i> |
| 목도리담비 | <i>Charronia flavigula koreana</i> |
| 족제비 | <i>Mistela sibirica coreana</i> |
| 곰 | <i>Ursus thibetanus ussuricus</i> |
| 너구리 | <i>Nyctereutes procyonoides koreensis</i> |
| 살 | <i>Felis bengalensis manchurica</i> |
| 포범 | <i>Felis pardus orientalis</i> |
| 멧도끼 | <i>Lepus sinensis coreanus</i> |
| 칭솔모 (청서) | <i>Sciurus vulgaris coreae</i> |
| 다람쥐 | <i>Eutamias asiaticus uthensis</i> |
| 날다람쥐 | <i>Petaurista leucogenys hintoni</i> |
| 대륙밭쥐 | <i>Clethrionomys rufocanus regulus</i> |
| 비단털쥐 | <i>Cricetulus triton nestor</i> |
| 등줄쥐 | <i>Apodemus agrarius coreae</i> |
| 흰넓적다리붉은쥐 | <i>Apodemus speciosus peninsulæ</i> |
| 곰쥐 | <i>Rattus rottus</i> |
| 애굽쥐 | <i>Rattus rattus alexandrinus</i> |

| | |
|----------|-------------------------------------|
| 집쥐 (시궁쥐) | <i>Rattus norvegicus norvegicus</i> |
| 집 박쥐 | <i>Pipistrellus abramus abramus</i> |
| 멧박쥐 | <i>Nyctalus lasiopterus aviator</i> |

(2) 조 류

外雪岳의 북부는 비교적 고산지대이므로 고산번식조인 쇠박새, 곤줄박이, 딱새, 족새, 칼새등을 優占種으로 들 수 있다. 한편 外雪岳山의 남부지역은 비교적 高山地帶이므로 평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고산조류인 쇠박새, 동고비, 곤줄박이등이 優占種이 되고 있다. 内雪岳의 북부에서는 가마귀, 노란할미새, 알락할미새, 노란턱깃새, 박새, 곤줄박이, 오목눈이, 술새, 노란눈섭술새, 쇠딱다구리등의 10 종이 優占種이 되고, 남부에서는 어치, 노랑할미새, 박새, 곤줄박이, 쇠박새, 흰눈섭 황금새, 큰유리새, 술새, 물가마귀등이 가장 흔한 종류이다. 雪岳山의 조류는 92 종이 알려지고 있다.

| | |
|--------|--|
| 큰부리가마귀 | <i>Corvus leuallantii mandshuricus</i> |
| 가마귀 | <i>Corvus corovo orientalis</i> |
| 까치 | <i>Pica pica japonica</i> |
| 물까치 | <i>Cyanopica cyanus koreensis</i> |
| 잣가마귀 | <i>Nucifraga caryocatactes macrorhynchos</i> |
| 이지 | <i>Garrulus glandarius brandtii</i> |
| 피꼬리 | <i>Oriolus chinensis diffusus</i> |
| 참새 | <i>Passer montanus dybowski</i> |

| | |
|---------|---|
| 쇠밀 화부리 | <i>Eophona migratoria migratoria</i> |
| 방울새 | <i>Chloris sinica ussuriensis</i> |
| 긴꼬리홍양진이 | <i>Uragus sibiricus ussuriensis</i> |
| 양진이 | <i>Erythrina sosea</i> |
| 솔жат새 | <i>Loxia curvirostra japonica</i> |
| 꼬까 참새 | <i>Emberiza rutila</i> |
| 노란턱멧새 | <i>Emberiza elegans elegans</i> |
| 족새 | <i>Emberiza spodocephala extremi-orientis</i> |
| 멧새 | <i>Emberiza cioides castaneiceps</i> |
| 붉은뺨멧새 | <i>Emberiza fucata fucata</i> |
| 쑥새 | <i>Emberiza rustica latifascia</i> |
| 흰배멧새 | <i>Emberiza tristrami</i> |
| 청둥새 | <i>Anthus hodgsoni hodgsoni</i> |
| 알락할미새 | <i>Motacilla alba leucopsis</i> |
| 노란할미새 | <i>Motacilla cinerea caspica</i> |
| 물레새 | <i>Dendronanthus indicus</i> |
| 나무발발이 | <i>Certhia familiaris orientalis</i> |
| 동고비 | <i>Sitta europaea hondoensis</i> |
| 박새 | <i>Parus major ladiwostokensis</i> |
| 곤줄박이 | <i>Parus varius varius</i> |
| 쇠박새 | <i>Parus palustris hellmayri</i> |
| 진박새 | <i>Parus ater insularis</i> |

| | |
|----------|--|
| 오목눈이 | <i>Aegithalos caudatus caudatus</i> |
| 붉은머리오목눈이 | <i>Suthora webbiana fulvicauda</i> |
| 매까치 | <i>Lanius bucephalus bucephalus</i> |
| 출매까치 | <i>Lanius tigrinus</i> |
| 노란매까치 | <i>Lanius cristatus lucionensis</i> |
| 적박구리 | <i>Hypsipetes amaurotis hensoni</i> |
| 할미새 사촌 | <i>Pericrocotus roseus intermedius</i> |
| 삼광조 | <i>Terpsiphone atrocaudata atrocaudata</i> |
| 흰눈섭 황금새 | <i>Muscicapa narcissina zanthopygia</i> |
| 큰유리새 | <i>Muscicapa cyanomelana cyanomelana</i> |
| 솔새 | <i>Phylloscopus borealis xanthodryas</i> |
| 산솔새 | <i>Phylloscopus occipitalis coronatus</i> |
| 노란눈섭솔새 | <i>Phylloscopus inornatus inornatus</i> |
| 휘바람새 | <i>Cettia diphone borealis</i> |
| 숲새 | <i>Urophena squameiceps ussuriana</i> |
| 호랑지빠귀 | <i>Turdus dauma toratugumi</i> |
| 흰눈섭지빠귀 | <i>Turdus sibiricus davisoni</i> |
| 흰배지빠귀 | <i>Turdus pallidus</i> |
| 노란지빠귀 | <i>Turdus naumanni naumanni</i> |
| 개똥지빠귀 | <i>Turdus naumanni eunomus</i> |
| 검은딱새 | <i>Saxicola tarquatus stejneger</i> |
| 딱새 | <i>Phoenicurus auroreus auroreus</i> |

| | |
|----------|--|
| 굴뚝새 | <i>Troglodytes troglodytes peninsulae</i> |
| 물까마귀 | <i>Cinclus pallasii hondoensis</i> |
| 재비 | <i>Hirundo rustica gutturalis</i> |
| 귀재비 | <i>Hirundo dauria japonica</i> |
| 칼새 | <i>Apus pacificus pacificus</i> |
| 속독새 | <i>Caprimulgus indicus jotaka</i> |
| 후투리 | <i>Upupa eopos saturata</i> |
| 과란새 | <i>Eurystomus orientalis abundus</i> |
| 물총새 | <i>Alcedo atthis bengalensis</i> |
| 청호반새 | <i>Halcyon pileata</i> |
| 호반새 | <i>Halcyon coromanda major</i> |
| 청딱다구리 | <i>Picus canus jessoensis</i> |
| 오색딱다구리 | <i>Dendrocopas major hondoensis</i> |
| 큰오색딱다구리 | <i>Dendrocopas leucotos sinicus</i> |
| 이물쇠딱다구리 | <i>Dendrocopos nanus doerriesi</i> |
| 쇠딱다구리 | <i>Dendrocopos kizuki nippon</i> |
| 가막딱다구리 | <i>Dryocopos martius</i> |
| 크낙새 | <i>Dryocopos javensis richardsi</i> |
| 삿꾸기 | <i>Cuculus canorus telephonus</i> |
| 병어리삿꾸기 | <i>Cuculus saturatus horsfieldi</i> |
| 두견이 | <i>Cuculus poliocephalus poliocephalus</i> |
| 검은줄발이삿꾸기 | <i>Cuculus micropterus micropterus</i> |

| | |
|----------|---|
| 큰숫작새 | <i>Otus asio semitorques</i> |
| 숫작새 | <i>Otus scops stictonotus</i> |
| 석황조롱이 | <i>Falco columbarius insignis</i> |
| 황조롱이 | <i>Falco tinnuncus tinnunculus</i> |
| 젓빛개구리매 | <i>Circus cyaneus cyoneus</i> |
| 참매 | <i>Accipiter gentis schvedowi</i> |
| 붉은배새매 | <i>Accipiter soloensis</i> |
| 새매 | <i>Accipiter nisus nisosimilis</i> |
| 왜가리 | <i>Ardea cinerea jouyi</i> |
| 검은뺨기해오라비 | <i>Butorides striatus amurensis</i> |
| 청둥오리 | <i>Anas platyrhynchos platyrhynchos</i> |
| 대기흰쭈지 | <i>Aythya fuligula</i> |
| 멧비둘기 | <i>Streptopelia orientalis orientalis</i> |
| 잡작도요 | <i>Tringa hypoleucos</i> |
| 뜸부기 | <i>Gallinix cinerea</i> |
| 물닭 | <i>Fulica atra atra</i> |
| 들평 | <i>Tetrastes bonasia coreensis</i> |
| 평 | <i>Phasianus colchicus karpowi</i> |

(3) 파충류

外雪岳의 북부지역에서는 대륙유혈목이, 유혈목이, 실뱀, 까치살모사, 줄장지뱀을 볼 수 있는데, 그중에도 유혈목이가 가장 많다.

남부지역에서는 유혈목이, 무자치, 구렁이, 능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장지뱀, 줄장지뱀 등이 비교적 많고, 태록유혈목이, 누룩뱀은 적은 편이다. 内雷岳의 低地帶(800 m 이하)에서는 유혈목이, 살모사, 장지뱀 등이 흔하고, 능구렁이는 인가근처에서 채집되며 高地帶(800 m 이상)에는 까치살모사가 많이 살고 있다. 雪岳山에 서식하는 파충류는 다음의 11 종이다.

| | |
|--------|--|
| 유혈목이 | <i>Natrix tigrina lateralis</i> |
| 태록유혈목이 | <i>Natrix vibakari rathuni</i> |
| 실뱀 | <i>Zamenis spinalis</i> |
| 무자치 | <i>Elaphe rufodorsata cantor</i> |
| 구렁이 | <i>Elaphe schrenkii schrenkii</i> |
| 누룩뱀 | <i>Elaphe dione</i> |
| 능구렁이 | <i>Dinodon rufozonatum rufozonatum</i> |
| 살모사 | <i>Agkistsodon halys brevicaudus</i> |
| 까치살모사 | <i>Agkistrodon halys interomediis</i> |
| 줄장지뱀 | <i>Takydromus wolteri</i> |
| 장지뱀 | <i>Takydromus auraralis</i> |

(4) 양서류

外雷岳의 북부지역에서는 산간계류에서 무당개구리를 흔히 볼 수 있고, 神興寺 근처에서는 꼬리치레도롱뇽이 채집된다. 남부지역에서는 꼬리치레도롱뇽, 무당개구리, 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를 흔히

볼 수 있고, 청개구리, 개구리, 옴개구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內雪岳 남부지역 전역에 걸쳐 제류를 따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무당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꼬리치레도롱뇽이며, 특히 將帥台 앞을 흐르는 물속에 물두꺼비가 많이 서식하고 있다. 물두꺼비는 수년전에 처음 발견된 新種이다. 이밖에도 무당개구리는 전세계에서 주로 우리나라에만 分布되는 종류로 개구리중에서도 색채가 가장 아름다우며, 그 變異性이 커서 특징이 된다. 雪岳山에 알려진 양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9 종류이다.

| | |
|---------|---|
| 꼬리치레도롱뇽 | <i>Onychodactylus fischeri</i> |
| 무당개구리 | <i>Bombina orientalis</i> |
| 두꺼비 | <i>Bufo bufo asiaticus</i> |
| 물두꺼비 | <i>Bufo kangu</i> |
| 청개구리 | <i>Hyla arborea japonia</i> |
| 개구리 | <i>Rana nigromaculata nigromaculata</i> |
| 북방산개구리 | <i>Rana temporaria temporaria</i> |
| 옴개구리 | <i>Rana rugosa</i> |
| 산개구리 | <i>Rana temporaria ornativentaris</i> |

(5) 담수어류

雪岳山의 영동구역과 영서구역에 따라 어류의 分布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영동구역에는 双川과 南大川에 농여 있는데 전자에

서는 산천어, 은어, 버들개, 미꾸리, 종개, 뱀장어, 밀어, 꼭저구, 독중개 등이 잡히며, 그 중에도 다수 서식하는 것은 은어, 버들개, 독중개 등이다. 후자에서는 전어, 뱀어, 잉어, 붕어, 황어, 송사리, 큰가시고기, 황복등 전자에서 나지않는 종류를 볼 수 있고, 그 밖에 칠성장어, 산천어, 은어, 버들개, 기름종개, 미꾸리, 쌀미꾸리, 종개, 미유기뱀장어, 송어, 밀어, 꼭저구, 독중개,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 영서구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류는 열목어, 미유기, 돌고기, 쉬리, 갈겨서, 꺾지, 대농갱이, 통가리, 버들치, 잉어, 붕어, 누치, 참마자, 어름치, 모래무지, 금강모치, 꼬리, 피라미, 북납자루, 들상어, 배가사리, 기름종개, 미꾸리, 쏘가리, 구굴무치, 다목장어, 베기, 통가리, 모래주사, 새코미꾸리, 종개, 절동사리, 밀어 등이다. 그 중에도 열목어와 금강모치는 영동구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종류이다.

靑岳山에 서식하는 어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열목어 | <i>Brachymystax lenok</i> |
| 송어 | <i>Oncorhynchus masou</i> |
| 연어 | <i>Oncorhynchus keta</i> |
| 산천어 | <i>Oncorhynchus macrostomus</i> |
| 은어 | <i>Plecoglossus altivlis</i> |
| 잉어 | <i>Cyprinus carpio</i> |
| 붕어 | <i>Carassius carassius</i> |
| 누치 | <i>Hemibarbus leleo</i> |
| 참마자 | <i>Hemibarbus longirostris</i> |

| | |
|------|--------------------------------------|
| 어름치 | <i>Gonoprokopterus mylodon</i> |
| 모래무지 | <i>Pseudogobio esocinus</i> |
| 돌고기 | <i>Pungtungia herzi</i> |
| 버들치 | <i>Moroco oxycephalus</i> |
| 버들개 | <i>Moroco lagowskii</i> |
| 금강모치 | <i>Moroco sp</i> |
| 쉬리 | <i>Corecleuciseus splendidus</i> |
| 꼬리 | <i>Opsariichitys bidens</i> |
| 피파리 | <i>Zacco platypus</i> |
| 갈겨니 | <i>Zacco temmincki</i> |
| 묵납자루 | <i>Acheilognatus sigifer</i> |
| 돌상어 | <i>Gobiotia brevibarba</i> |
| 배가사리 | <i>Microphysogobis longidorsalis</i> |
| 기름종개 | <i>Cobitis taenia</i> |
| 미꾸리 | <i>Misgurnus anguillicaudatus</i> |
| 종개 | <i>Barbatula toni</i> |
| 대농갱이 | <i>Pseudobagrus emerginatus</i> |
| 통가리 | <i>Liobagrus asotus</i> |
| 메기 | <i>Parasilurus asotus</i> |
| 미유기 | <i>Parasilurus microdorsalis</i> |
| 뱀장어 | <i>Anguilla japonica</i> |
| 겨지 | <i>Coreoperca herzi</i> |

| | |
|-------|---|
| 쏘가리 | <i>Siniperca scherzeri</i> |
| 밀어 | <i>Gobius simiis</i> |
| 꼭저구 | <i>Chaenogobius annularia urotaenia</i> |
| 독중개 | <i>Cottus poecilopterus</i> |
| 구굴무치 | <i>Eleotris pisonis oxycephala</i> |
| 칠성장어 | <i>Lametra japonica</i> |
| 전어 | <i>Chupanodon punctatus</i> |
| 뱅어 | <i>Salangichthys microdon</i> |
| 황어 | <i>Tribolodon hakonensis</i> |
| 쌀미꾸리 | <i>Lefusa costata</i> |
| 큰가시고기 | <i>Gasterosteus latipes</i> |
| 승어 | <i>Mugil cephalus</i> |
| 황복 | <i>Sphoeroides ocellatus</i> |
| 다묵장어 | <i>Lametra reissneri</i> |
| 모래주사 | <i>microphysogobio koreensis</i> |
| 사코미꾸리 | <i>Cobitis rotundicaudata</i> |
| 결동사리 | <i>Eleotris potamophila</i> |

(6) 雪岳山에서 分布상 특이할 동물

잣가마귀 (*Nucifraga caryocatactes macrohynchos*)

전국에 걸쳐 高地帶에 分布되어 있으나 번식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던 것을 1966년에 雪岳山 鳳頂암부근에서 처음으로 번식중의 것을 확인했다. 이곳은 표고 1,300 m의 高地帶이다.

o. 흰배멧새 (*Enberiza tristrami*)

이 종류도 鳳頂암 부근에서 번식하는 것이 관찰 확인되었다.

o. 물두꺼비 (*Bufo hangii*)

1965년 五大山에서 처음으로 채집되어 新種으로 발표된바 있는데, 內雪岳 남부지역 寒溪川에 개체수가 많게 서식하고 있으므로 이곳의 본종의 分布중심지가 아닌가 생각된다.

o. 칠성장어 (*Lampetra japonica*)

본종은 캄차카반도, 유콘강, 日本의 島根縣이북, 北海道의 서해로 흐르는 하천에 分布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分布 구역으로는 함흥, 雄基, 密陽 등이 알려져 있다.

o. 열목어 (*Brachymystax lenok*)

시베리아, 유럽, 북미, 滿洲등지에 分布되며, 우리나라에서는 鴨綠江, 大同江, 淸川江, 豆滿江, 漢江, 洛東江 상류에 서식한다.

o. 연어 (*Oncorhynchus kota*)

o. 송어 (*Oncorhynchus matou*)

이 두 종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分布가 거의 같아서 洛東江을 포함한 동부 및 동북부의 남해와 동해로 주입되는 여러 하천에서 찾아볼 수 있다. 雪岳山에서도 雙川 및 南大川이 이 양종의 특산지가 되고 있다.

o. 산천어 (*Oncorhynchus macrostomus*)

본종의 우리나라의 分布는 원래 북부동해로 흐르는 하천으로 알려졌던 것인데, 수년전 雙川 및 南大川에도 서식하고 있음이 밝

혀졌다. 그러나 雪岳山의 영서구역에서는 나지 않는다.

o. 금강모치 (*Moroco* sp)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원래 鴨綠江, 北漢江 상류, 內金剛의 赤壁江 상류였던 것인데, 수년전 雪岳山에서도 分布되어 있음이 밝혀졌

o. 삭백어 (*Leucopsarion petersi*)

본종은 해산어로서 우리나라 남부와 日本 각지 연안에 서식하며 산란기에는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온다. 雪岳山에서는 雙川 하구지역에서 알려지고 있다.

(7) 멸종 위기에 놓여있는 동물 및 희귀종

o. 크낙새 (*Dryocopus javensis*)

한국 중부이남에 한하여 채집기록과 번식지가 알려져 있으며, 최근 雪岳山에서도 관찰되었다.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종류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o. 산 양 (*Naemorhodus goral raddeanus*)

白頭山 및 江原道の 高地帶 표고 1,000m 이상에 한하여 分布 번식하는 진귀한 포유류의 1종이다. 雪岳山에서는 매년 겨울에 수없이 주민들에 의해 희생되고 있기에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o. 사향노루 (*Moschus moschiferus parvipes*)

우리나라 특산종이며, 이 종류 역시 주민들에 의해 희생되어

그수가 격감되고 있는 형편이다.

o. 노란목도리담비 (*Charronia flavigula koroana*)

o. 곰 (*Ursus thibotanus ussuricus*)

o. 오수리 (*Moles meles melanogenys*)

이들 대형인 포유동물도 밀렵으로 그들 수가 격감되고 있다.

o. 가막딱다구리 (*Dryocopus martius*)

白頭山 일대에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중부이남에서는 진귀한 딱다구리이다. 1966년에 雪岳山 五巖 부근 표고 1,000 m 정도의 지점에서 발견된바 있다.

o. 물두꺼비 (*Bufo kangu*)

1965년 新種으로 발표된 진귀한 양서류의 1종이다.

2) 雪岳山의 식물

分布区系 상으로 본 雪岳山은 中日区系 중 温帶亞区系에 속한다. 雪岳山의 식물은 일찌기 鄭台滋 박사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1963년) 127과, 376속, 758종으로 되어 있다. 이들중 2/3 정도가 한국내 다른 지역의 것과 공통종이며, 특산종은 설악조팝나무, 크바디 등 수종에 지나지 않는다.

(1) 특기할 植物群落

o. 눈잣나무 (*Pinus pumila*)群落

이 종류는 북방계분자로서 白頭山, 漢山과 같은 火山을 제

의하고는 雪岳山이 북의 高山에 널리 分布하는 針葉樹로서, 雪岳山의 中靑峰 및 大靑峰 사이 해발 1680 m 부근에 상당히 넓은 면적에 걸쳐 群落을 이루고 있음을 본다. 이 지역은 이 식물의 分布南限地帶가 된다.

○. 접방나무 (*Thuja koraiensis*) 群落

이 식물도 역시 針葉樹이지만 鱗片葉의 이면에 흰가루에 덮힌 氣孔帶를 가졌고, 휘발성의 향기를 내서 특징이 된다. 五十溪瀑布溪谷의 서쪽, 雙瀑溪谷의 서쪽과 千仙洞溪谷의 양측, 大靑峰의 남쪽, 북쪽에 群落을 이루고 있는데, 單純群落은 아니고 사스래나무 (*Betula ermanii* var. *acutifolia*)가 그 상층을 이루고, 그 사이에 만병초 (*Rhododendron fauriei* var. *rufescens*)도 섞여 있다.

○. 털진달래 (*Rhododendron mucronulatum* var. *ciliatum*) 群落

이 종류는 中國의 북부, 滿洲, 한국에 널리 分布하는 灌木이며, 적갈색의 봄철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식물이다. 雪岳山에서는 中靑峰의 서쪽 해발 1700 m 부근에 왜소한 灌木으로 大群落을 이루며, 봄철(5월초) 그 일원을 붉게 물들이는 광경은 매우 아름답다. 그 사이에 노랑 만병초 (*Rhododendron chrysanthum*), 들쪽나무 (*Vaccinium uliginosum* var. *fauriei*), 홍월귤 (*Arctous ruber*), 바늘인가목 (*Rosa koreana*) 등이 끼여 있다.

○. 눈향나무 (*Juniperus chinensis* var. *sargentii*)의 群落

큰 群落을 이루고 있는 곳은 大靑峰의 서남쪽이며, 五色溪谷에 있는 표고 1400 m인 큰빨반이의 절벽이다. 이 근처에 우리나라에

서는 南方分布限界線 상에 놓여 있는 만주송이풀, 왜솔다리, 흰철쭉 등 그리 흔하지 않는 식물이 자라고 있음을 본다.

0. 여러 종류의 老濶葉樹林

雪岳山 低項嶺의 600 m 지점서부터 1000 m에 이르기까지에 졸참나무, 만주고로쇠나무, 젓나무, 까치박달, 음나무, 신갈나무, 사스레나무, 물푸레나무등의 老木이 섞인 濶葉樹林은 전국적으로 보기 드문 것이다. 이 밖에도 千仞洞溪谷의 서나무群落, 低項嶺溪谷 입구의 황철나무群落, 大靑峰의 남쪽 1580 m 지점에 自生하는 사스레나무와 분비나무의 群落이 존재한다.

6. 高山植物 群落

雪岳山에서는 대체로 1700 m 부근서부터 高山植物이 나타난다. 小靑峰, 中靑峰, 大靑峰의 정상 가까운 곳에서 高山植物 群落을 볼 수 있으며 그의 주요분자는 다음과 같다.

바람꽃, 섬초오, 범의 꼬리, 가는다리장구채, 좁양지꽃, 산오이풀, 애기오이풀, 산쥐손이풀, 꽃쥐손이, 왜제비꽃, 노랑제비꽃, 등대시호, 개회양, 바위송이풀, 구름송이풀, 구름채꽃, 금강초롱, 구절초, 산솔다리, 두메잔디, 큰황새풀, 한라부추, 때이풀등이다.

(2) 分布 상으로본 특이식물

雪岳山은 太白山脈의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고도도 1708 m 인 때문에 과거 地殼時代에 있었던 기후변천으로 인하여 북방식물이 남하하는 통로가 되었고, 또 기후가 회복함에 따라 남하했던

식물이 북상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雪岳山 산정부근에 남아있는 高山植物 群落在 이를 증명하고 있다.

分布상 南限이 되는 식물

| | |
|---------|--------------------------------|
| 눈잣나무 | <i>Pinus pumila</i> |
| 분비나무 | <i>Abies nephrolepis</i> |
| 절편나무 | <i>Thuja koraiensis</i> |
| 바위송이풀 | <i>Pedicularis nigrescens</i> |
| 등대시호 | <i>Bulphurum euphorbioides</i> |
| 가는다리장구채 | <i>Silene tenuis</i> |

分布상 北限이 되는 식물

| | |
|--------|-------------------------------------|
| 매죽나무 | <i>Styrax japonica</i> |
| 사람주나무 | <i>Triadica japonica</i> |
| 장구밤나무 | <i>Grewia parvifloa</i> |
| 설설이고사리 | <i>Phegopteris decursivepinnata</i> |

(3) 雪岳山에서 나는 우리나라 특산식물과 희귀한 식물

특산식물

| | |
|--------|--|
| 설악조팝나무 | <i>Spiraea pubescens</i> var. <i>lasiocarpa</i> |
| 찰피나무 | <i>Tillia mandshurica</i> var. <i>villicarpa</i> |
| 큰박새 | <i>Veratrum mackii</i> var. <i>macranthum</i> |
| 세잎종영굴 | <i>Clematis koreana</i> |
| 큰바디 | <i>Angelica megaphylla</i> |

희귀한 식물

| | |
|-------|-----------------------------------|
| 눈주목 | <i>Taxus caespitosa</i> |
| 분비나무 | <i>Abies nephrolepis</i> |
| 승마 | <i>Cimicifuga heracleifolia</i> |
| 노랑갈퀴 | <i>Vicia venosissima</i> |
| 등대시호 | <i>Dupleurum euphorbioides</i> |
| 개회향 | <i>Cnidium tachiroei</i> |
| 모데미풀 | <i>Megaloranthis stellata</i> |
| 칼잎용담 | <i>Gentiana uchiyamana</i> |
| 구름송이풀 | <i>Podicularis verticillata</i> |
| 체꽃 | <i>Scabiosa mansenensis</i> |
| 두메잔대 | <i>Adenophora lamarkii</i> |
| 왜솜다리 | <i>Leontopodium japonicum</i> |
| 금강분취 | <i>Saussurea diamantiaca</i> |
| 솜분취 | <i>Saussurea eriophylla</i> |
| 솔나리 | <i>Lilium cernum</i> |
| 메자주솜대 | <i>Smilacine bicolor</i> |
| 매발톱나무 | <i>Berberis amurensis</i> |
| 털오리나무 | <i>Alnus japonica var. euclid</i> |
| 쪽버들 | <i>Salix maximowiczii</i> |
| 물향칠나무 | <i>Populus koreana</i> |
| 툼바위취 | <i>Satifraga punotafa</i> |

| | |
|---------|--|
| 두메꿀풀 | <i>Brunella vulgaris</i> |
| 사람주나무 | <i>Triadica japonica</i> |
| 설설이 고사리 | <i>Phegopteris decursivopinnata</i> |
| 장구밤나무 | <i>Grewia parviflora</i> |
| 미치광이풀 | <i>Scopolia parviflora</i> |
| 바람꽃 | <i>Anemone narcissiflora</i> |
| 만병초 | <i>Rhododendron fauriei</i> var. <i>roseum</i> |
| 노랑만병초 | <i>Rhododendron chrysanthum</i> |
| 홍월굴 | <i>Arctous ruber</i> |
| 여우버들 | <i>Salix floderusii</i> |
| 정향나무 | <i>Syringa velutina</i> var. <i>palibiana</i> |
| 이노리나무 | <i>Crataegus komarovii</i> |
| 단삼 | <i>Salvia miltiorrhiza</i> |
| 개회향 | <i>Cnidium tachiroei</i> |
| 국화방망이 | <i>Senecio koreanus</i> |
| 금낭화 | <i>Dicentra spectabilis</i> |
| 산마늘 | <i>Allium victorialis</i> |
| 만주송이풀 | <i>Poellicularis mandshurica</i> |
| 난티나무 | <i>Ulmus lacinata</i> |
| 엘레지 | <i>Erythranium japonicum</i> |
| 금강초롱 | <i>Hanabusaya asiatica</i> |
| 말나리 | <i>Lilium distichum</i> |

| | |
|-------|---------------------------------------|
| 흰싸리 | <i>Lespedeza bicolor</i> form, alba |
| 금강봄맞이 | <i>Androsace cortusaefolia</i> |
| 만리화 | <i>Forsythia ovata</i> |
| 흰각시취 | <i>Saussurea pulchella</i> form, alba |
| 물이끼 | <i>Sphagnum</i> csp. |

3) 金剛山의 동물

金剛山은 특급산 들어있고 해방전에는 한번 답사한 일이 있지만 해방 후에는 전혀 여행한 일이 없으며, 또 문헌도 충분히 입수하기가 어려워 얻을 수 있는 문헌에 의해 지금까지 알려진 金剛山의 대표적인 동물을 소개해볼까 한다.

(1) 포유동물

우선 불곰이 内金剛에 상당한 수 서식한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2종류의 곰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불곰(큰곰)이고 다른 하나는 곰(반달가슴곰)이다. 예전에는 金剛山에 호랑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제는 없어졌으리라고 본다. 호랑이는 한국특산아종으로 현재 멸종되었는지 여부는 국제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호랑이와 비슷한 것으로 표범은 金剛山 中内院 부근에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表訓寺 근처에는 족제비가 많으며 金剛山 昆盧峰(内金剛) 근처에는 흰족제비가 서식한다. 이 종류는 茂山에서 처음 발견되었기에 무산쇠족제비라고도 불리운

다. 흰족제비는 원래는 白頭山 지역에 서식하는 북방계인 동물인데 金剛山까지 남하하고 있음은 학술적으로도 주목되는 일이다. 또 金剛山에는 살기(살), 여우, 너구리, 오소리, 노랑목도리담비 등도 발견된다.

사슴종류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7종류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金剛山에는 사슴, 노루, 산양, 사향노루(궁노루)의 4종류가 발견되고 있다. 포유동물중 金剛山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다람쥐이다. 다람쥐는 우리나라에 4종류가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金剛山에는 다람쥐외에 청서(청설모)와 하늘다람쥐도 서식한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집쥐인 시궁쥐(집쥐), 생쥐도 表訓寺를 비롯하여 사찰, 인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야외에서는 대륙밭쥐(밭쥐), 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 등의 들쥐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 박쥐 종류에서 긴꼬리수염박쥐(긴꼬리박쥐)와 생박쥐도 발견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중에도 호랑이, 표범, 족제비, 흰족제비, 여우, 너구리, 노랑목도리담비, 사향노루, 산양, 청서, 하늘다람쥐, 대륙밭쥐, 등줄쥐, 흰넓적다리붉은쥐등은 우리나라에만 서식하는 특산종 내지 아종으로 金剛山에서 이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이 밖에 우리나라에서 시베리아에 걸쳐 分布되어 있는 북방계 종류로 金剛山에서 발견되는 것에는 북곰, 오소리, 사슴, 노루, 다람쥐, 긴꼬리수염박쥐, 생박쥐 등이 있다.

| | |
|----------|---|
| 불곰 | <i>Ursus thibetanus ussuricus</i> |
| 호랑이 | <i>Felis tigris corensis</i> |
| 표범 | <i>Felis pardus orientalis</i> |
| 족제비 | <i>Mustela sibirica coreana</i> |
| 흰족제비 | <i>Mustela nivalis mosanensis</i> |
| 살기 | <i>Felis beegalensis manchurica</i> |
| 여우 | <i>Vulpes vulpes peculiaris</i> |
| 너구리 | <i>Nyctereutes procyonoides koreensis</i> |
| 오소리 | <i>Meles meles melanogenys</i> |
| 노랑목도리담비 | <i>Charronia flavigula aterrima</i> |
| 사슴 | <i>Cervus nippon mantchuricus</i> |
| 노루 | <i>Capreolus capreolus bedfordi</i> |
| 산양 | <i>Naemorhedus goro raddeanus</i> |
| 사향노루 | <i>Moschus moschiferus parvipes</i> |
| 다람쥐 | <i>Eutamias sibiricus asiaticus</i> |
| 청서 | <i>Sciurus vulgaris coreae</i> |
| 하늘다람쥐 | <i>Pteromys volans aluco</i> |
| 대륙밭쥐 | <i>Clethrionomys rufocanus</i> |
| 등줄쥐 | <i>Apodemus agrarius coreae</i> |
| 흰넓적다리붉은쥐 | <i>Apodemus speciosus peninsulae</i> |
| 긴꼬리수염박쥐 | <i>Myotis longicaudatus</i> |
| 생박쥐 | <i>Eptesicus nilssonii</i> |

(2) 조 류

참새목의 종류는 허울은 작지만 조류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를 지니고 있는데, 金剛山의 조류도 참새목의 종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수가 많다. 우선 까마귀, 까치, 물까치, 어치, 잣까마귀등을 들수 있다. 그중에도 까치는 해방후 우리나라 国鳥로 지정된 종류이며, 잣까마귀는 高山性인 종류로 金剛山의 昆盧峰, 永郎峰, 大長峰등의 정상부근에 서식한다. 물까치는 우리나라에만 나는 특산종이며, 어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시베리아등지에 사는 북방계 종류이다. 그 밖에 솔жат새, 방울새, 족새, 노랑턱멧새, 무당새, 흰배멧새, 쌍새, 쇠붉은뺨멧새, 쇠박새, 곤줄박이, 진박새, 동고비, 알락할미새, 긴발톱할미새, 노랑할미새, 상모솔새, 칠째까치, 넓은이마홍때까치, 때까치, 화여새, 쇠솔딱새, 제비딱새, 큰유리새, 흰눈썹황금새, 노랑딱새, 휘파람새, 노랑허리솔새, 노랑눈썹솔새, 제주식박구리, 피꼬리, 흰배지빠귀, 개똥지빠귀, 유리딱새, 딱새, 물까마귀등의 참새목에 속하는 여러 종류가 金剛山 일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 방울새와 동고비는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특산종이며, 진박새, 넓은이마홍때까치, 노랑허리솔새, 물까마귀등은 우리나라의 북쪽에서 시베리아, 일본의 북쪽, 사할린 지방에 걸쳐 分布되어 있는 북방계 새종류이다. 수림사이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등산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종류는 큰유리새, 휘파람새, 피꼬리, 유리딱새, 노랑턱멧새등이며, 메를 지어 산간 수림 속을 배회하는 종류는 쇠박새, 쌍새등이다. 한편 색채가 화려하여 아름다운 종류로는 유리딱새를

들 수 있다.

高山의 정상부근을 흔히 날라다니는 칼새는 昆盧峰 정상부근에서 볼 수 있으며, 물족새목에 속하는 조류로는 물족새, 호반새, 뿔호반새 등이 內金剛의 계류부근에서 찾아볼 수 있다. 金剛山의 거목이 우거진 수림 속에서 여러 종류의 딱다구리를 찾아볼 수 있다. 가막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아물쇠딱다구리, 쇠딱다구리, 청딱다구리, 크낙새등이며 도처에서 거목을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하다. 크낙새는 현재 세계를 통해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진귀한 특산종으로 楡砧寺에서 松林寺에 이르는 수림 중에 서식하고 있다. 이 새는 天然記念物로 보호를 받고 있는 종류이다.

外金剛의 초원에서는 백백도요, 멧도요등을 찾아볼 수 있고, 그 밖의 여러 종류의 도요 종류가 이동시기에 海金剛에 날라온다. 海金剛에는 이 밖에도 갯이갈매기, 갈매기, 바다쇠오리, 바다오리, 흰 눈섭바다오리, 흰수염바다오리, 쇠가마우지등의 갈매기목 및 바다오리목에 속하는 여러 종류를 찾아볼 수 있다.

內金剛, 外金剛과 산록부근에 평이 많이 살고 있음을 본다. 또 內金剛의 삼림 속에는 들평이 보이고, 摩河庵부근 깊은 수림 사이에 멧닭이 살고 있음을 본다. 끝으로 金剛山에서 말뚝가리, 새매, 참매, 황조롱이 등 4 종류의 매가 기록되어 있다.

크낙새 이외에도 큰오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및 들평은 우리나라에만 사는 특산종이며, 또 가막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아물쇠딱다구리, 바다오리, 멧닭등 여러 종류는 우리나라의 북

쪽, 시베리아, 日本의 북해도 이북에만 사는 북방계 새종류이다.

| | |
|--------|---|
| 까마귀 | <i>Corvus corone orientalis</i> |
| 까치 | <i>Pica pica serica</i> |
| 물까치 | <i>Cyanopica cyanus koreensis</i> |
| 어치 | <i>Garrulus glandarius brandtii</i> |
| 잣까마귀 | <i>Nucifraga caryocatactes macrohynchos</i> |
| 솔жат새 | <i>Loxia curvirostris japonica</i> |
| 방울새 | <i>Carduelis sinica ussuriensis</i> |
| 족새 | <i>Emberiza spidocephala</i> |
| 노랑턱멧새 | <i>Emberiza elegans elegans</i> |
| 무당새 | <i>Emberiza sulphurata</i> |
| 흰배멧새 | <i>Emberiza tristrami</i> |
| 쑥새 | <i>Emberiza rustica</i> |
| 쇠붉은팍멧새 | <i>Emberiza pusilla</i> |
| 쇠박새 | <i>Parus palustris hellmayi</i> |
| 곤줄박이 | <i>parus varius varius</i> |
| 진박새 | <i>Parus ater</i> |
| 동고비 | <i>Sitta canadensis corea</i> |
| 알락할미새 | <i>Motacilla alba leucopsis</i> |
| 긴발톱할미새 | <i>Motacilla flava taivana</i> |
| 노랑할미새 | <i>Motacilla cinerea caspica</i> |
| 상모솔새 | <i>Regulus regulus japonensis</i> |

참매

Accipiter gentilis schvedowi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interstinctus

(3) 파충류

우리나라의 파충류는 25종류가 기재되어 있는데, 金剛山에는 7종류의 파충류가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종류의 장지뱀과 3종류의 뱀 그리고 1종류의 살모사이다. 장지뱀의 3종류는 아물장지뱀, 줄장지뱀, 포범장지뱀이고 3종류의 뱀은 구렁이, 누룩뱀, 유혈목이 등이다.

이들 7종류 중에도 줄장지뱀은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산종이며, 아물장지뱀, 포범장지뱀, 구렁이, 유혈목이 살모사등 5종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國의 북쪽, 시베리아, 사할린등지에 살고 있는 대륙성인 종류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3종의 살모사 종류(북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가 나는데 그중 1종이 金剛山에 서식하는 셈이 된다.

아물장지뱀

Takydromus amurnsis

줄장자뱀

Takydromus wolteri

포범장지뱀

Eremias argus

구렁이

Elaphe schrenckii

누룩뱀

Elaphe dione

유혈목이

natrix tigrina

살모사

AAgkistrodon blomhofii

(4) 양서류

우리나라의 양서류는 남북을 통해 14 종류가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金剛山에 서식하는 것이 꼬리치레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조선산 개구리, 무당개구리등 5 종류이다. 약간 높은 곳 계류에는 무당개구리가 살고 산림 속 낙엽 사이에서는 산개구리 종류를 볼 수 있다.

이들 종류중에서 꼬리치레도롱뇽 및 도롱뇽은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특산종이다. 또 북방산개구리, 조선산개구리는 우리나라는 물론 滿洲, 시베리아, 사할린, 일본의 北海道등지에 分布되어 있는 종류이다. 무당개구리는 배가 붉은색을 해서 이색진 개구리 종류인데 우리나라 본토는 물론 제주도 일본의 對馬島등지에 分布한다.

| | |
|---------|----------------------------------|
| 꼬리치레도롱뇽 | <i>Onychodactylus fischeri</i> |
| 도롱뇽 | <i>Hynobium laeochi</i> |
| 북방산개구리 | <i>Rana temporaria dybowskii</i> |
| 조선산개구리 | <i>Rana amurensis coreana</i> |
| 무당개구리 | <i>Bombina orientalis</i> |

(5) 담수어류

內金剛의 계류 및 外金剛 赤壁江 상류에서 미유기, 통가리가 채집된다. 미유기는 한국특산종이다. 表訓寺 근변 北漢江 상류의 계곡에 버들가지, 금강모치, 돌고기, 돌상어, 기름종개가 나는데, 예전부터 金剛山에서 버들가지, 금강모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

| | |
|----------|---|
| 참매까치 | <i>Lanius tigrinis</i> |
| 넓은이마홍매까치 | <i>Lanius cristatus confusus</i> |
| 매까치 | <i>Lanius bucephalus bucephalus</i> |
| 화여새 | <i>Bombycilla garrulus centralasiae</i> |
| 쇠솔딱새 | <i>Muscicapa latirostris</i> |
| 제비딱새 | <i>Muscicapa griseisticta</i> |
| 큰유리새 | <i>Siphia cyanomelana cyanomelana</i> |
| 흰눈썹황금새 | <i>Siphia narcissina zanthopygia</i> |
| 노랑딱새 | <i>Siphia muqimaki</i> |
| 휘과람새 | <i>Cettia diphone borealis</i> |
| 노랑허리솔새 | <i>Phylloscopus proregulus proregulus</i> |
| 노랑눈썹솔새 | <i>Phylloscopus inornatus inornatus</i> |
| 제주직박구리 | <i>Hypsipetes amaurotis amaurotis</i> |
| 피꼬리 | <i>Oriolus chinensis diffusus</i> |
| 흰배지빠귀 | <i>Turdus pallidus</i> |
| 개롱지빠귀 | <i>Turdus naumanni eunomus</i> |
| 유리딱새 | <i>Tarsiger cyanurus cyanurus</i> |
| 딱새 | <i>Phoenicurus aureus aureus</i> |
| 물까마귀 | <i>Cinclus pallasii pallasii</i> |
| 칼새 | <i>Apus pacificus pacificus</i> |
| 물족새 | <i>Alcedo atthis bengalensis</i> |
| 호반새 | <i>Halcyon coromanda major</i> |

| | |
|---------|--|
| 북호반새 | <i>Ceryle lugubris lugubris</i> |
| 가막딱다구리 | <i>Dryocopus martius martius</i> |
| 오색딱다구리 | <i>Dendrocopos major</i> |
| 큰오색딱다구리 | <i>Dendrocopos laucotos coreosis</i> |
| 아몰쇠딱다구리 | <i>Dendrocopos canicapillus</i> |
| 쇠딱다구리 | <i>Dendrocopos kizuki</i> |
| 청딱다구리 | <i>Picus canus griseoviridis</i> |
| 크낙새 | <i>Dryocopus javensis richardsi</i> |
| 백백도요 | <i>Tringa nebularia</i> |
| 멧도요 | <i>Scolopax rustricola rustricola</i> |
| 팽이갈매기 | <i>Larus crassirostris</i> |
| 갈매기 | <i>Larus canus camtschatschensis</i> |
| 바다쇠오리 | <i>Synthliboramphus antiquus</i> |
| 바다오리 | <i>Uria aalge inornata</i> |
| 흰눈썹바다오리 | <i>Cephus carbo</i> |
| 환수염바다오리 | <i>Cerorhinca monocerata</i> |
| 쇠가마우지 | <i>Phalacrocorax pelagicus pelagicus</i> |
| 평 | <i>Phasianus colchicus karpowi</i> |
| 들평 | <i>Tetrastes bonasia vicinitas</i> |
| 멧닭 | <i>Lyrurus tetrax ussuriensis</i> |
| 말뚱가리 | <i>Buteo buteo burmanicus</i> |
| 새매 | <i>Accipiter nisus nisosimilis</i> |

참매

Accipiter gentilis schvedowi

황조롱이

Falco tinnunculus interstinctus

(3) 과충류

우리나라의 과충류는 25종류가 기재되어 있는데, 金剛山에는 7종류의 과충류가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종류의 장지뱀과 3종류의 뱀 그리고 1종류의 살모사이다. 장지뱀의 3종류는 아물장지뱀, 줄장지뱀, 표범장지뱀이고 3종류의 뱀은 구렁이, 누룩뱀, 유혈목이 등이다.

이들 7종류 중에도 줄장지뱀은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산종이며, 아물장지뱀, 표범장지뱀, 구렁이, 유혈목이 살모사등 5종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国의 북쪽, 시베리아, 사할린등지에 살고 있는 대륙성인 종류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3종의 살모사 종류(북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가 나는데 그중 1종이 金剛山에 서식하는 셈이 된다.

아물장지뱀

Takydromus amurnsis

줄장지뱀

Takydromus wolteri

표범장지뱀

Eremias argus

구렁이

Elaphe schrenckii

누룩뱀

Elaphe dione

유혈목이

natrix tigrina

살모사

Agkistrodon blomhofii

(4) 양서류

우리나라의 양서류는 남북을 통해 14 종류가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金剛山에 서식하는 것이 꼬리치레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조선산개구리, 무당개구리등 5 종류이다. 약간 높은 곳 계류에는 무당개구리가 살고 산림 속 낙엽 사이에서는 산개구리 종류를 볼 수 있다.

이들 종류중에서 꼬리치레도롱뇽 및 도롱뇽은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특산종이다. 또 북방산개구리, 조선산개구리는 우리나라는 물론 滿洲, 시베리아, 사할린, 일본의 北海道등지에 分布되어 있는 종류이다. 무당개구리는 배가 붉은색을 해서 이색진 개구리 종류인데 우리나라 본토는 물론 제주도 일본의 對馬島등지에 分布한다.

| | |
|---------|----------------------------------|
| 꼬리치레도롱뇽 | <i>Onychodactylus fischeri</i> |
| 도롱뇽 | <i>Hynobium leachi</i> |
| 북방산개구리 | <i>Rana temporaria dybowskii</i> |
| 조선산개구리 | <i>Rana amurensis coreana</i> |
| 무당개구리 | <i>Bombina orientalis</i> |

(5) 담수어류

內金剛의 계류 및 外金剛 赤壁江 상류에서 미유기, 통가리가 채집된다. 미유기는 한국특산종이다. 表訓寺 근변 北漢江 상류의 계곡에 벼들가지, 금강모치, 돌고기, 들상어, 기름종개가 나는데, 예전부터 金剛山에서 벼들가지, 금강모치가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

다. 특히 돌상어는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로 진귀한 것이며, 원래는 北漢江 상류에서만 살고 있는 학술적으로 귀중한 종류로 알려져 있었다. 그 밖에 밀어, 열목어등을 金剛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열목어는 한자로 熱目魚라 쓰며 눈이 열로 벌개져서, 개천이나 강의 상류의 찬 물에 사는 것은 눈의 열을 사키기 위험이라는 전설이 있다. 이 종류는 북한, 滿洲, 시베리아에 사는 북방계 (냉수성) 물고기이며, 남한의 雪岳山을 비롯해 몇 곳이 그의 산지로 알려졌고, 天然記念物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分布南限界).

金剛山에서 발견된 담수어류의 대부분인 미유기, 통가리, 버들가지, 금강모치, 돌고기, 돌상어등은 우리나라에만 分布되어 있는 특산종이다. 한편 기름종개와 열목어는 우리나라의 북쪽 내지 滿洲, 시베리아등지에서 나는 북방계 냉수성인 물고기들이다.

| | |
|------|----------------------------------|
| 미유기 | <i>Parasilurus microdorsalis</i> |
| 통가리 | <i>Liobagrus andersonii</i> |
| 버들가지 | <i>moroco semotilus</i> |
| 금강모치 | <i>Moroco sp.</i> |
| 돌고기 | <i>Pungtungia herzi</i> |
| 돌상어 | <i>Gobiobotia brevibarba</i> |
| 기름종개 | <i>Cobitis taenia</i> |
| 밀어 | <i>Gobius similis</i> |
| 열목어 | <i>Brachymystax lenok</i> |

4) 金剛山의 식물

(1) 金剛山의 식물상

이제까지 金剛山에서 조사된 식물은 종자식물이 714 종, 양치식물이 59 종, 선류 30 종 그리고 대류가 1 종, 지의류 7 종으로 되어 있다. 그중 종자식물 714 종을 인접지역의 식물상과 비교해 본다면 북한 전체와는 514 종, 남한과는 484 종이 공통종으로 되어 있고, 日本과는 464 종, 北滿洲와는 449 종, 南滿洲와는 396 종, 우수리지방과 373 종, 중국의 북부와는 310 종이 각각 공통종이라고 分布되어 있다.

특히 1000 m 이상의 고지분자는 거의 다가 북한 내지 北滿洲와의 공통종이며, 상당한 수의 특산종이 섞여 있으며, 또 日本과의 공통종도 적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때 金剛山の 식물상은 東亞植物帶의 일부로서 특색을 갖추고 있다고 보겠다.

金剛山 식물에서 특산속은 금강인가목속 (Pentactina), 금강초롱속 (Hanabusay)의 두 가지며, 특산종이 17 종, 특산변종이 역시 17 개나 된다. 그중에는 목재용으로 좋은 종류, 관상가치가 높은 분비나무, 솔잎나리, 금강초롱, 만리화등을 열거할 수 있고, 약용식물은 양약재와 한약재로 구분해서 상당한 수가 알려지고 있다.

(2) 金剛山의 특산식물

金剛山の 종자식물 714 종 중에 특산식물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종과 변종을 합쳐서 34 종류나 된다. 그중에서 금강인가

목 (*Pentactina rupicola*)은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로 金剛山의 昆盧峰부근, 內金剛의 普德 근처의 바위틈에 매달리는 작은 나무이며 세계에서 1속 1종만이 남아있는 진귀한 종류이다. 金剛山에서 발견된 뒤에는 아직까지 다른 곳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금강초롱 (*Hanabusaya asiatica*)도 金剛山에서 처음 발견되어 그 이름이 생겼고, 도라지과에 속하는 식물로, 아름다운 꽃이 가을철에 피는 다년생 초본이며, 관상식물로 개발할 가치가 큰 종류이다. 이 종류가 金剛山에서 발견된 뒤에 妙香山, 劍山嶺, 雪岳山에 分布되어 있음이 알려졌고, 최근 休戰線근방 식물상 조사에서 香炉峰 일대에서 본종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영초과에 속하는 금강봄맞이꽃 (*Androsaco cortusae-folia*), 현삼과의 봉래교리풀 (*Veronica diamantia*), 백합과의 흰술잎나리 (*Lilium carnum var. alba*) 등을 들 수 있다.

3) 특기할 식물

分布상 金剛山이 南限界가 되는 식물로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잎갈나무 (*Larix gmelini var. principis*), 버드나무과의 새양버들 (*Chosoni bracteosa*)을 들 수 있다. 그중에도 잎갈나무는 북한의 산지 및 滿洲에도 分布되어 있는 落葉喬木으로서 造林樹種이며, 自生으로는 金剛山이 南限界地帶가 된다는 것이다. 새양버들도 滿洲와 북한의 저지 계류부근에 自生하는 버드나무의 일종인데, 그 樹皮가 회백색인 점이 특이하며, 이 종류는 金剛山 이남에서는 발

견되지 않는다. 반대로 남방분자로서 金剛山의 北限界地帯가 되는 것은 매죽나무과에 속하는 매죽나무 (*Styrax japonica*), 자작나무과의 서나무 (*Carpinus lotiflora*), 운향과의 쯤피나무 (*Xanthoxylum piperitum*), 층층나무과의 산딸나무 (*Cornus kousa*) 등을 들 수 있다.

金剛山의 식물은 특유요소가 풍부하며, 북한, 滿洲와의 공통종 그리고 남한, 日本과의 공통종으로 구성된 混生地帯라는 점이 이 지역의 특색있는 식물상이 되고, 따라서 특유한 植物景觀을 이루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방분자의 南限界 또는 남방분자의 北限界라는 分布 상의 뚜렷한 경계선이 金剛山 일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또한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따라서 金剛山의 植物景觀은 마치 남한과 북한의 식물상을 혼합해놓은 것과 흡사하다. 이 점은 植物景觀이라는 면만이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기에 이 식물상은 영구히 保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찌기 金剛山에서 특산식물로 알려진 34 종류 중에서 금강인가목, 금강봄맞이꽃, 흰솔잎나리 등 3 종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한의 雪岳山 및 香炉峯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金剛山의 특산식물로 유명한 금강초롱, 칼잎용담, 비로용담 등이 雪岳山, 香炉峯에도 分布함을 알게 되어, 근자에 와서는 植物分布상 金剛山, 香炉峯, 雪岳山이 같은 구역이라고 보게 되었다. 또 눈잣나무, 순촉백나무의 群落도 이 지역에서 공통된 것이다. 그러나 金剛山에서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잣나무 (*Pinus koraiensis*), 잣나무 (*Abies holoph-*

ylla), 가문비나무 (Picea jesoensis), 눈잣나무 (Pinus pumila) 등이 針葉樹로서 우세하며, 개채수도 많은 반면 雪岳山에는 개채수가 적고 오히려 闊葉樹林이 우세하여, 계절에 따른 植物景觀의 변화가 분명하다. 더우기 雪岳山의 단풍景觀은 金剛山을 능가하고 있다.

5) 香炉峰 동식물

香炉峰 및 그 주변 非武裝地帶의 동식물에 관해서는 필자가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 보고서에 발표한바 있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國立公園이나 自然公園을 지정 개발하기에 앞서 그 지역의 自然資源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는 필연적인 것이며, 우리나라 非武裝地帶에 걸쳐 있는 雪岳山 - 香炉峰 - 金剛山의 광대한 지역은 여러차례의 예비조사 결과 세계적으로도 가장 적지라고 판단되어 그 지역의 남·북한 공동 개발을 위한 종합 학술조사계획안을 작성해 보았으며, 아울러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 보았다.

1930 년대에 日本 政府는 주로日本학자를 동원해서 金剛山의 自然資源을 조사하다가 중단되었고, 1960 대에는 우리 政府(文敎部)가 학자를 동원해서 雪岳山의 資源을 조사한바 있으며, 그뒤 한미공동으로 또 文公部 예산보조로 여러차례 非武裝地帶(香炉峰포함) 전반에 걸친 예비조사를 실시한바 있지만 自然資源에 관한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의 관계학자가 손을 잡고 이 거창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경축할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불완전하지만 이제까지 산발적으로 雪岳山 - 香炉峰 - 金剛山 지역에서 밝혀진 동식물상을 정리해서 첨부했다. 이 자료는 독자들의 참고가 될뿐 아니라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5. 참고 문헌

- 1) 鄭文基 1961 韓國動植物圖鑑(魚類), 文敎部
- 2) 鄭台鉉 1965 韓國動植物圖鑑(植物), 文敎部
- 3) 韓國自保研, 1970 韓國의 自然, 文化公報部
- 4) 姜永善 1962 韓國動植物圖鑑(鳥類), 文敎部
- 5) 姜永善 1972 南北韓天然資源의 比較研究, 國土統一院 72年度 下半期 報告書
- 6) 姜永善 非武裝地帶의 天然資源에 關한 共同研究,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報告書
- 7) 森為三 1951 朝鮮의 動物, 朝鮮學報 第1輯
- 8) 森為三 1952 朝鮮에 於 動物, 朝鮮學報 第2輯
- 9) 森為三 1959 金剛山의 動植物, 朝鮮學報 高橋教授頌壽記念号
- 10) 文敎部 1968 雪岳山 學術調查報告書
- 11) 中井猛之進 1918 金剛山植物調查書, 朝鮮總督府
- 12) 中井猛之進 1952 朝鮮植物誌梗概 日本國立科博研報
- 13) Okada, Y. 1938 a Catalogue of Vertebrates of Japan
Tokyo
- 14) 元炳昉 1963 韓國鳥類分布目錄, 林業試驗場
- 15) 元炳徽 1970 韓國動植物圖鑑(哺乳類), 文敎部

